

〈사례보고〉

초등학생의 비만도와 체형지각에 따른 신체상,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박중옥* · 전성숙*† · 김동희*

*부산대학교 간호대학

〈목 차〉

I. 서론	V. 결론
II. 연구 방법	참고문헌
III. 연구 결과	Abstract
IV. 논의	

I. 서론

신체상(body image)은 신체에 대하여 가지는 느낌이나 태도(Stuart et al., 1983)를 말하며, 늘 타인과의 비교에서 얻어진다(원경희, 2002). 이러한 신체상은 정서적인 긴장을 유발시키거나 성격의 변화를 일으킬 뿐 아니라 자아존중감을 낮게 하여 자아상실의 위기를 초래하기도 한다(Hargreaves와 Tiggemann, 2002). 반면 신체상에 대해 자신감과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며 대인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이정숙, 2001). 따라서 긍정적인 신체상은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준

다. 더구나 외모를 중시하는 최근의 사회풍조를 생각한다면 신체상과 관련되는 문제로 학생들이 겪을 고민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비만은 신체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비만학생은 정상체중학생에 비해 부정적인 신체상과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이며(황옥련, 2003; 양일순, 2007), 또래와 어울리기 보다는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김옥, 1999).

대중문화 또한 신체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권기덕, 1999),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된 마른 모습의 이상적인 체형과 자신의 신체를 비교하여 자신의 체형이 실제보다 뚱뚱한 것으로 잘못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김옥수, 1998). 특히, 학령기 아동이 자신의 신체크기나 모습을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교신저자: 전성숙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 1가 10번지 부산대학교 간호대학 (602-739)

전화번호: 051-240-7758 E-mail: worthtree@hotmail.com

▪ 투고일 2008.2.20

▪ 수정일 2008.6.27

▪ 게재확정일 2008.6.21

너무 왜소하거나 비만하다고 표현하는 등 비현실적으로 지각할 경우 신념 및 가치관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유일영 등, 1997), 아동이 올바르게 체형을 지각하고 있는지와 신체상,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신체의 빠른 성장과 2차 성징의 발달은 신체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변화된 신체에 따른 새로운 신체상을 형성화하므로, 사춘기 신체변화가 시작되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자신에 대한 올바른 신체상을 확립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이에 대한 이해와 연구는 아주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신체상 관련 선행연구들은 중·고등학생, 대학생,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비만과 체형지각에 따른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본 연구가 대부분으로(김정화, 2000; 양일순, 2007; 정덕조, 2006), 신체변화가 시작되는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드물며, 비만과 체형에 따른 사회성을 보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초등학생의 비만도에 따른 신체상,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의 관계를 조사하여 비만도가 초등학생의 신체상,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봄과 동시에 체형지각에 따른 신체상,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비만도, 신체상,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간의 관계를 경로분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연구 대상자는 경상남도 김해시에 소재하는 동지역 4개교 4학년, 면지역 6개교 6학년 330명으로 자가보고형 질문지를 이용하여, 각 초등학교 신체검사일에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가벼운 옷만 입은 상태에서 연구자와 당해 학교 보건교사가 신장과 체중을 측정하여 질문지에 기입한 후 학생들에게 질문지를 되돌려 주어 나머지 문항을 기록하도록 한 후 바로 회수하였다. 그 중 질문지의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응답 내용의 신뢰성이 부족한 5부를 제외한 325부만을 최종분석 하였다.

2. 연구도구

1) 비만도

비만도는 한국 소아의 체중 백분위(대한소아과학회, 1997)의 50퍼센타일 값을 이용하여 [(실측체중-신장별표준체중)/신장별표준체중]×100으로 구하였다. -10%까지 과소체중, -10~10% 정상체중, 10%~20% 이상은 과체중군, 20% 이상은 비만으로 정의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과소체중, 정상체중, 과체중/비만군의 세 그룹으로 정의하였다.

2) 체형지각

연구 대상자 자신의 체형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으로 '똥똥한편', '마른편', '보통'의 내용 중에서 선택하여 측정하였다.

3) 신체상

신체상(body image)은 신체에 대하여 가지는

느낌이나 태도(Stuart et al., 1983)를 말하며, Mendelson와 White(1982)의 Body-Esteem 척도 24개 문항 중 조지숙(1992)의 연구에서 중복된 문항을 제외하고 수정 사용된 12개 문항을 정신의학 전문의 1인 및 간호학교수 1인과 검토한 후 사용하였다. 4점 척도로 12점에서 48점까지의 점수범위를 갖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상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조지숙(1992)의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 = .70$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 = .70$ 이었다.

4)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로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태도로 표현되며 자신의 능력, 중요성, 성공 및 가치 등에 대하여 스스로 믿는 정도(Coopersmith, 1967)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1965)의 Self-esteem scale을 전병제(1974)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여러 연구(전병제, 1974; 이영자, 1996)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바 있다.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적용범위가 아동에서 성인까지 광범위하고 문항수가 적어 초등학생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할 수 있어 채택하였다. 이 척도는 4점 척도로 10점에서 40점까지의 점수범위를 갖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영자(1996)의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 = .79$ 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 = .73$ 이었다.

5) 사회성

사회성은 사람이 여러 집단의 사람들과 적절한 관계를 맺어나가는 생활능력을 말하며(임영미, 1998), 본 연구에서는 이종승(1999)이 개

발한 “최신 인성·정서진단검사”중에서 권영미(1999)의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성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발 당시 전문가 집단의 타당도 검증을 받았으며(안혜숙과 이종승, 2002), 본 연구를 위해 심리학과 교수 1인과 간호학과 교수 1인의 검증을 받았다. 초등학교 고학년용으로서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된 3점 척도로 0점에서 30점까지의 점수범위를 갖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권영미(1999)의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 = .75$ 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 = .74$ 였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1.0 program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키와 체중에 근거한 비만도를 계산하였고, 체형지각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체형지각과 비만도에 따른 신체상, 자아존중감, 사회성은 One-way ANOVA을 실시한 후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신체상,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을 실시하였으며 비만도, 신체상, 자아존중감과 사회성간의 관계를 AMOS 4.0을 이용하여 경로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비만도와 체형지각

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학생 49.8%, 여학생 50.2%로 거의 같은 분포를 보였다. 대상자의 비만도에 따라 분류한 결과 정상체중군이 43.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과소체중군 34.8%,

비만군 12.0%(경도 비만 4.9%, 중등도 비만 0.%, 고도 비만 6.2%), 과체중군 9.8% 순으로 나타났다(표 없음). 따라서 연구자는 분포비율이 낮은 과체중군과 비만군을 과체중/비만군으로 통합하여 추후분석에서는 비만도를 과소체중군, 정상체중군, 과체중/비만군으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비만도가 '과소체중군'에 속하는 남학생은 자신의 체형을 '마른 편'이라고 바르게 지각한 경우는 55.6%인 반면 '보통'이라고 지각한 경우는 44.4%였다. 반면 여학생은 자신의 체형을 '마른 편'이라고 바르게 지각하고 있는 경우는 39.0%에 불과했고, 자신의 체형을 '보통'이라고 지각한 경우가 59.3%로 가장 많았고, '뚱뚱한 편'이라 지각하는 경우도 1.7% 있었다.

비만도가 '정상체중군'에 속하는 남학생은 자신의 체형을 '보통'이라고 바르게 지각한 경우가 78.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14.5%는 자신이 '마른 편'으로, 7.2%는 자신이 '뚱뚱한

편'(7.2%)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여학생은 자신의 체형을 '보통'이라고 바르게 지각한 학생이 73.6%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16.7%는 자신이 '뚱뚱한 편'으로 인지하고, 9.7%는 '마른 편'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비만도가 '비만군'에 속하는 남학생은 대부분 자신의 체형을 '뚱뚱한 편'이라고 76.9%가 바르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여학생 또한 자신의 체형을 '뚱뚱한 편'이라고 87.5%가 바르게 지각하고 있었다. 즉 남학생은 실제 비만도에 따라 자신의 체형을 비교적 바르게 지각하고 있었으나, 여학생은 실제 비만도보다 자신의 체형을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성별 비만도와 체형지각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연구 대상자의 체형지각과 비만도에 따른 신체상,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의 차이

연구 대상자의 신체상 평균은 30.49점이었다. 체형지각에서 자신의 체형이 '보통'이라고 지각

<표 1> 연구 대상자의 비만도와 체형지각도과의 관계

비만도		체형지각			계	χ ²	p
		마른편	보통	뚱뚱한편			
과소체중군	남	30 (55.6)	24 (44.4)	-	54 (100.0)	3.76	0.15
	여	23 (39.0)	35 (59.3)	1 (1.7)	59 (100.0)		
정상체중군	남	10 (14.5)	54 (78.3)	5 (7.2)	69 (100.0)	3.36	0.19
	여	7 (9.7)	53 (73.6)	12 (16.7)	72 (100.0)		
과체중/ 비만군	남	-	9 (23.1)	30 (76.9)	39 (100.0)	2.41	0.30
	여	-	4 (12.5)	28 (87.5)	32 (100.0)		

명(%)

하는 학생이 신체상 점수가 가장 높았고, '똥똥한 편'이라고 지각하는 학생은 '마른 편'이라고 지각하는 학생보다 신체상 점수가 낮았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15.90, p<.05$). 또한 사후 검증에서 '마른 편'인 학생과 '보통'인 학생, '똥똥한 편'인 학생과 '보통'인 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비만도에서 '과소체중'인 학생의 신체상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비만'인 학생은 '정상체중'인 학생보다 신체상 점수가 낮았고,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6.18, p<.05$). 또한 사후 검증에서 '과소체중'인 학생과 '비만'인 학생, '정상체중'인 학생과 '비만'인 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구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점수는 평균 27.60

점이었다. 체형 지각에서 자신의 체형이 '보통'이라고 지각하는 학생이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았고, '똥똥한 편'이라고 지각하는 학생은 '마른 편'이라고 지각하는 학생보다 자아존중감이 낮았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3.17, p<.05$). 또한 사후 검증에서 '보통'인 학생과 '똥똥한 편'인 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비만도에서는 '과소체중'인 학생이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았고, '비만'인 학생은 '정상체중'인 학생보다 자아존중감이 낮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연구 대상자의 사회성 점수는 평균 18.36점이었다. 체형 지각에서는 자신의 체형이 '마른 편'이라고 지각하는 학생에서 사회성이 가장 높았고, '똥똥한 편'이라고 지각하는 학생이 '보통'

<표 2> 체형지각과 비만도에 따른 신체상,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의 차이

N=325

특성	구분	N	Mean	SD	F	p	Scheffe	
신체상	체형지각	마른 편	70	28.85	4.12	15.90	0.000	a<b(p=0.000) b>c(p=0.016)
		보통	180	30.81	5.27			
		똥똥한 편	75	27.17	4.33			
	비만도	과소체중	113	30.25	4.83	6.18	0.002	a>c(p=0.004) b>c(p=0.012)
		정상체중	141	29.89	5.26			
		과다체중/비만	71	27.73	4.59			
자아존중감	체형지각	마른 편	70	27.61	4.30	3.17	0.043	b>c(p=0.043)
		보통	180	28.03	4.26			
		똥똥한 편	75	25.56	4.20			
	비만도	과소체중	113	27.91	3.90	2.41	0.092	
		정상체중	141	27.84	4.48			
		과다체중/비만	71	26.62	4.40			
사회성	체형지각	마른 편	70	18.87	4.63	2.88	0.058	
		보통	180	18.62	4.41			
		똥똥한 편	75	17.25	5.06			
	비만도	과소체중	113	18.70	4.47	3.48	0.032	b>c(p=0.035)
		정상체중	141	18.73	4.38			
		비만	71	17.08	5.23			

이라고 지각하는 학생보다 사회성이 낮았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비만도에서는 '과소체중'인 학생과 '정상체중'인 학생이 '비만'인 학생보다 사회성이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3.48, p<.05$).

3. 연구 대상자의 신체상,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의 관계

연구 대상자의 신체상,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신체상은 자아존중감($r=.506, p<.001$)과 사회성($r=.314, p<.001$)에 대해 비교적 높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아존중감도 사회성($r=.460, p<.001$)과 비교적 높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초등학생은 신체상이 긍정적일수록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이 높았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사회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4. 비만도, 신체상,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간의 관계

1) 확인적 요인분석

측정항목들의 집중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전체 구성개념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한 결과, $\chi^2=1356.94(p<0.001)$, $GFI=0.81$, $AGFI=0.79$, $RMSEA=0.05$ 였다.

2)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정

연구모형의 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하였다. 연구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나타내는 최상의 지수(index)는 연구자들 간의 일관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적합지수를 함께 사용한다(Hu & Bentler, 1999).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지수는 χ^2 (Chi-square), GFI, AGFI, CFI, NFI, RMSEA이다.

연구모형이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검증적 모형의 적합도 지수로 χ^2 (Chi-square), GFI (Goodness-of-Fit Index: 적합도 지수), AGFI (Adjusted Goodness-of-Fit Index: 수정된 적합도 지수), CFI(Comparative Fit Index: 상대적합지수), NFI(Normed Fit Index: 표준 적합지수),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근사오차평균자승이 중근)등이 있다. 이중 χ^2 (Chi-square)에 의한 기준은 p값이 .05보다 크면 모형이 관측데이터에 적합하다고 간주한다. 그리고 GFI, AGFI, CFI, NFI는 0.9 이상이고 1에 가까울수록 바람직하며, RMSEA는 0.05 이하면 good, 0.08 이

<표 3> 신체상,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의 관계

구 분	신체상	자아존중감	사회성
신 체 상	1.000	0.506*** (0.000)	0.314*** (0.000)
자아존중감	-	1.000	0.460*** (0.000)
사 회 성	-	-	1.000

*** $p<.001$

하면 fit, 0.10 이하면 bad 이며 이 수치는 0에 가까울수록 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한다(Hu & Bentler, 1999).

검정결과를 보면 χ^2 (Chi-square)은 4.150, 자유도(df)는 3, 유의확률(p)는 0.246으로 유의수준(α) 0.05보다 크고, GFI는 0.994, AGFI는 0.979, CFI는 0.995, NFI는 0.981으로 0.9보다 크며, RMSEA는 0.034으로 0.05이하로 나타나 모든 지수가 최적모형의 적합수준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어 모형이 적합하였다.

3) 연구모형에 나타난 변인간의 인과관계 검정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정에서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라도 변인간의 인과관계가 유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유의미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C.R.(critical ratio)을 구하였다. 이것은 Z분포에 따라 .05수준에서는 1.96 이상, 그리고 .01 수준에서는 2.58 이상일 때 유의미한 경로라고 판정하는데 이것을 근거로 본 연구결과는 <표 4>에 보는 바와 같이 모든 경로에서 C.R.의 기준을 만족하였으므로

각 경로는 유의미하였다.

4) 비만도, 신체상,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간의 경로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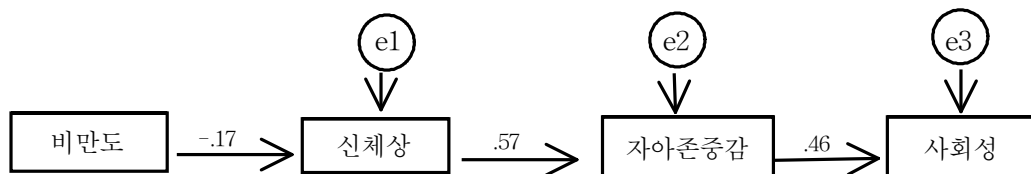
본 연구모형의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표준화된 부하량(또는 표준화된 회귀계수 = 표준화 추정치: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IV. 논의

사춘기에 접어들어 신체적 변화가 나타나는 초등학교 6학년 시기는 자신에 대해 적절한 신체상을 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신체상은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과 긍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반면(임숙빈, 2002; 이정숙, 2001) 체중과는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여중, 여고생, 대학생,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신체상,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연구가 대부분이며 초등학생을 대상

<표 4> 유의미한 경로 판단기준(C.R)

경	로	비표준화 추정치	S.E	C.R	표준화 추정치
비만도	→ 신체상	-1.150	0.365	-3.149	-0.172
신체상	→ 자아존중감	0.479	0.039	12.331	0.565
자아존중감	→ 사회성	0.498	0.498	9.315	0.460



<그림 1> 비만도, 신체상,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간의 경로분석

으로 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또한, 초등학생의 경우 자신의 체형을 올바르게 지각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마스크 등의 영향으로 날씬해지기를 선호하는 사회적 추세가 초등학생에까지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초등학생의 비만도와 체형지각에 따른 신체상,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과소체중군에 속한 학생이 자신의 체형을 보통 또는 뚱뚱한 편으로 잘못 지각하는 경우가 61.1%였으며, 정상체중군에 속한 학생이 자신을 뚱뚱한 편으로 잘못 지각하는 경우가 12%로 나타나 자신을 실제 체형보다 비만한 쪽으로 지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오늘날 일부 성인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된 마른 모습의 인기인의 체형과 자신의 신체를 비교하여 자신의 체형이 실제보다 뚱뚱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사회적 현상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도 이미 나타남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 체형지각에서 자신의 체형이 '뚱뚱한 편'이라고 지각하는 학생의 신체상이 부정적인 반면, 비만도가 과소체중인 학생들의 신체상이 긍정적이었는데, 이는 뚱뚱한 것은 나쁜 것이고 날씬한 것은 아름다운 것이며 아름다운 것은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사회문화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권기덕, 1999). 이러한 체형에 대한 왜곡된 부정적인 인식은 저체중 학생의 91.9%가 현재 몸무게를 조절하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는 것으로 보고한 이정숙(2001)의 연구와 평균체중인 아동이 자신의 체중에 불만을 느끼고 다양한 체중조절행위를 한다는 박중욱 등(2005)의 연구를 토대로 볼 때 성장기에 있는 초등학생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 시급하리라 사료된다.

한편, 비만도가 '비만'인 학생이 '정상체중' 혹은 '과소체중인' 학생보다 신체상 점수가 낮아 비만 아동은 표준 체중 아동에 비해 부정적인 신체상을 갖는다는 이옥련(1985)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는 초등학생의 경우도 비만도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신체상을 가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로 초등학생의 비만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자신의 체형지각에 따른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자신의 체형을 '보통'이라고 지각하는 경우에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아 김정화(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 비만아동이 정상아동에 비해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여 정순돌(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자신의 신체를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는 것으로 신체적 열등감은 초등학교 시기의 자아존중감을 손상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짐작케 한다.

한편, 본 연구결과 비만도에 따른 자아존중감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조선희와 김광웅(1989)이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비만아동과 표준체중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비교한 연구에서 비만아동에서 표준체중아동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연구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비만학생과 표준체중학생간의 자아존중감을 비교한 연구(황옥련, 2003; 박옥남, 2006)이며 본 연구에서와 같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과소체중, 정상체중, 비만군으로 나누어 비교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비만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살펴보는 추가연구가 필

요하리라 사료된다.

사회성의 경우, 비만도가 '정상체중'과 '과소체중'인 경우가 '비만'인 보다 사회성이 유의하게 높아 표준체중 학생들은 비만인 학생보다 또래에 의해 거부당하지 않고 소외감을 덜 느낀다는 이정숙(2001)의 연구와 과소체중학생들이 친구관계가 좋은 반면 비만학생이 친구관계에 가장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장완선(1996)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황옥련(2003)의 연구에서 비만아동이 표준체중아동보다 집단따돌림을 더 많이 받음을 고려할 때 비만아동을 위한 심리, 정서적 간호중재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한편 근본적인 문제인 비만관리 대책의 시급함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 대상자의 신체상,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신체상은 자아존중감과 비교적 높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이정숙(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신체상은 사회성과 비교적 높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아존중감도 사회성과 비교적 높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장광수(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비만도, 신체상,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간의 경로분석 결과 비만은 부정적인 신체상을 형성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상실하게 되고 나아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회성의 성향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 부모와 보건교육전문가는 사춘기 신체변화가 시작되는 초등학교시기에 긍정적인 신체상을 확립하여 자신의 신체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학교생활과 교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동시에 체중조절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체중조

절 방법에 관해 교육과 상담을 반드시 실시해야 할 것이다.

V. 결 론

최근 사회의 늘씬하고 마른 체형을 선호하는 사회문화적 경향에 따른 초등학생들의 체형지각 및 비만도가 신체상,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초등학생들이 체형·체중에 대해 바른 인식을 가지고 긍정적인 신체상을 확립하여 적극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학생은 실제 비만도에 따라 자신의 체형을 비교적 바르게 지각하고 있었으나, 여학생은 실제 비만도 보다 자신의 체형을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체형지각에서 자신의 체형이 '보통'이라고 지각하는 학생이 신체상 점수가 가장 높았고, '뚱뚱한 편'이라고 지각하는 학생은 '마른 편'이라고 지각하는 학생보다 신체상 점수가 낮았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비만도에서 '과소체중'인 학생의 신체상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비만'인 학생은 '정상체중'인 학생보다 신체상 점수가 낮았고,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체형 지각에서 자신의 체형이 '보통'이라고 지각하는 학생이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았고, '뚱뚱한 편'이라고 지각하는 학생은 '마른 편'이라고 지각하는 학생보다 자아존중감이 낮았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넷째, 체형 지각에서는 자신의 체형이 '마른 편'이라고 지각하는 학생에서 사회성이 가장 높았고, '뚱뚱한 편'이라고 지각하는 학생이 '보통'

이라고 지각하는 학생보다 사회성이 낮았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비만도에서는 '과소체중'인 학생과 '정상체중'인 학생이 '비만'인 학생보다 사회성이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다섯째, 신체상은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대해 비교적 높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아존중감도 사회성과 비교적 높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여섯째, 비만도, 신체상,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간의 경로분석결과 적합도 지수가 최적모형의 적합수준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어 모형이 적합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신의 신체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를 형성하고 건강을 유지 증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체상 확립의 기초가 되는 초등학교 시기에 올바른 신체상을 갖도록 교육함과 동시에 체중조절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체중조절 방법에 관해 교육과 상담을 실시 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 부모와 보건교육전문가는 사춘기 신체변화가 시작되는 초등학교시기에 체형과 체중에 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학교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신체 관리 및 체형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며, 생활지도나 상담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초등학생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고민을 보다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기덕. 신체상에 관한 연구: 신체, 자아, 사회관계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사회과학연구 1999;6(3):109-123.

권영미.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서울: 중앙대학교 대학원, 1999.

김옥수. Obesity and weight control behaviors of middle and high school girl students. 간호과학 1998;10(2):13-21.

김옥. 비만청소년의 심리적, 사회적 특성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명지대학교 대학원, 1999.

김정화. 비만아동과 표준체중아동의 신체상만족도 및 자아존중감과 관계[석사학위논문]. 서울: 국민대학교 대학원, 2000.

대한소아과학회. 한국소아발육표준치. 서울: 대한소아과학회, 1997.

박옥남. 표준체중과 비만학생 간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비교연구: 중학생을 대상으로[석사학위논문]. 강원도: 강원대학교 대학원, 2006.

박중옥, 전성숙, 김영혜, 안숙희. 초등학생의 비만도에 따른 성별 체형지각, 체중만족도, 체중조절 경험과의 관계. 한국모자보건학회지 2005;9(1):63-71.

안혜숙, 이종승. 컴퓨터 게임 몰입 아동의 특성에 관한 연구. 교육발전논총 2002;23(1):57-87.

양일순. 도시, 농촌중학생의 비만도에 따른 신체상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전라북도: 원광대학교 대학원, 2007

원경희. 남녀초등학생의 신체상 만족도와 성역할에 대한 정체감 비교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002;25(2):37-63.

이옥련. 비만학생과 표준체중 학생의 건강통제위성격과 신체상에 대한 비교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5.

이영자.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과 우울 및 본인과의 관계[박사학위논문]. 서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1996.

이정숙. 중·고등학생의 성별, 비만, 타인의 평가와 신체 존중감과 관계[석사학위논문]. 충청북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01.

이종승. 초등학교 고학년용 최신 인성·정서 진단 검사 요강. 서울: 코리안테스팅센터, 1999.

임숙빈. 청소년의 신체상과 정신건강.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002;25(2):30-33.

- 임영미. 아동의 학업성적, 자아개념 및 사회성이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서울: 고려대학교, 1998.
- 유일영 외 10인. 학령기 비만아동의 신체상 관련 요인 분석. *간호학탐구* 1997;6(2):91-121.
- 장광수.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및 정신건강과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충청북도: 한국교원대학교, 1999.
- 장완선. 전기 청소년기 아동의 체중특성과 자아상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서울여자대학교, 1996.
- 정덕조. 여대생들의 비만정도가 체중조절행위, 신체상, 자기효능감, 건강증진행위 및 정신건강 증진 행위에 미치는 영향. *운동과학* 2006;15(4): 365-376.
- 전병제. 자아개념 측정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논총 11, 1974.
- 정순돌. 초등학생의 비만정도, 신체상만족도,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경상남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 조선화, 김광웅. 비만아동과 표준체중아동의 건강통제위 성격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연구. *생활과학연구지* 1989;3:51-67.
- 조지숙. 청소년의 신체상, 신체적 매력, 신체상의 왜곡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연구[석사학위논문]. 부산: 부산대학교 대학원, 1992.
- 황옥련. 비만 아동과 표준체중아동의 신체상, 자아존중감 및 집단 따돌림 정도 비교 연구[석사학위논문]. 강원도: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 Coopersmith S.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1967.
- Hargreaves D, Tiggemann M. The effect of television commercials on mood and body dissatisfaction: the role of appearance-schema activati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002;21(3): 287-308.
- Mendelson B, White DR. Relation between body-esteem and self-esteem of obese and normal children. *Perceptual Motor and Skills* 1982;54:899-905.
- Hu, L, Bentler, PM.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 1999; 6(1):1-55.
- Rosenberg M. *Society and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Stuart GW, Laraia MT, Sundeen SJ. *Principle and practice of psychiatric nursing*. St. Louis: Mosby, 1983.

<Field Action Report>

<ABSTRACT>

Body image, self-esteem and sociability according to perception of body shape and obesity level among elementary schoolers

Jung-Ok Park, Seong-Sook Jun*[†], Dong-Hee Kim

** College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body image, self-esteem and sociability according to perception of body shape and obesity level.

Method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325 elementary school youngsters in their sixth year. A survey was conducted, and one-way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path analysi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Results: Normal weight group accounted for 43.4%, under weight group 34.8% and obesity group 21.8%. In underweight group, 53.1% of the subjects perceived their body was normal or fatty while 17% of subjects in normal group perceived their body was fatt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body image according to the perception of body shape by grade($F=15.90$, $p=.000$) and to the level of obesity($F=6.18$, $p=.002$).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elf-esteem according to the perception of body shape by grade($F=3.17$, $p=.430$).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ociability according to the level of obesity($F=3.48$, $p=.032$). There was significantly strong positive correlation among their body image, self-esteem and sociability. A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tested and fitted the data well.

Conclusions: This study suggested that health education is needed to establish the correct body image from the elementary school periods by school health educators. The right body image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to improve self-esteem and sociability.

Key words : Elementary schoolers; Obesity; Body image; Self-esteem; Sociability.